*영어어문교육 16*권 **3**호 **2010**년 가을

명시적인 어휘적 연어 지도가 문법적 연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치사 연어 중심으로*

김 낙 복
(나사렛대학교)

Kim, Nahk Bohk. (2010). The effects of the explicit lexical collocation instruction on the grammatical collocation knowledge: Focusing on preposition colloca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3), 141-16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explicit lexical collocation instruction on grammatical collocation knowledge, by focusing on the preposition collocations. The forty participants consisting of twenty men and twenty women are currently freshmen English majors in college. They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on their basic lexical learning strategies in pre-post tests, and carried out a lexical collocation test and a preposition collocation test as pre-post tests. They took the open class on the lexical collocations(LC) 5 times, but they did not concretely study any grammatical collocations(GC). Each test is analyzed and compared with pre-post tests by SPSS 12.0. From all the analyses, it was first revealed that most students who didn't know about the concepts, types and uses of collocations became aware of them after the class. The effects of the lexical collocations on the lexical collocation knowledge were quite revealing. Seco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lexical collocations and grammatical collocations were not significant, although relations among the lexical collocations were quite significant. Finally, some suggestions for methods of mixed lexical chunks instruction are made for students'productive skills. Also, it is suggested that more profou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giving direct instructions on the basis of the lexico-grammatical continuum between LC and GC.

[lexical collocation/grammatical collocation/lexical chunks/collocational pair, 어휘적 연어/문법적 연어/어휘적 뭉칫말/연어 쌍]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그 동안의 어휘학습은 문법과 분리하여 주로 읽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원자적인 개별 단어 중심의 학습이었다(김낙복, 2005). 뿐만 아니라, 읽기와 듣기가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영어학습에서 전치사(preposition)는 다른 품사에 비하여 수가 적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즉, 소위 기능어(function words)로 취급하여 크게 주목하여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 학습은 대개 단순 암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표현 기술이 강조되는 실시간 의사소통 시대에는 단어가 서로 결합하여 구성되는 뭉칫말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어휘학습으로는 말하고 쓰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져다 준다. 즉, 의미를 포함한 필요한 말을 전달하는데 개별 단어로는 자연스런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단어와 유의적 결합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언어적 배경과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두 단어 이상의 뭉칫말의 결합 유형 및 원리를 통한 단어간 결합의 핵심인 연어 능력(collocational competence)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많은 어휘론자들은 과거의 개별 단어와 문법 중심의 언어학습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Conzett, 2000; Lewis, 1997; Nation, 2001). 그 대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적 언어학습은 개별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기 보다는 단어간의 결합관계인 연어 (collocation)와 같은 어휘 뭉칫말(lexical chunks)에 주목하여 관찰하고, 기록하고, 재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Lewis(1997)는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오던 언어습득의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의 상당부분은 어휘들간의 공기(co-occurrence)관계로 결합하여 분석되지 않는 전체(unanalyzed wholes)인 다단어 조립식 뭉칫말 (multi-word prefabricated chunks)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어휘적 접근방식(lexical approach)을 주창하여 구 구조 중심의 문법중심학습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Nattinger 와 DeCarrico(1992)도 문장을 과거와 같이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개별 어휘의 의미를 인식하기 보다는 의미 결합 어구(lexical phrases)에 주목하고 그것을 하나의 큰 덩어리인 뭉칫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단어간 결합체인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 LC)는 영어 기본 문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영어 학습에 큰 장점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좀 더 세부적이고 첨언적인 상황이 많은 경우에는 LC 를 넘어 전치사의 역할이 무척 커지고 있다. 즉, 단어와 단어, 특히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거나 수식하는데 있어 전치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의 유창성을 기르고 짧은 대화 중심의, 소위 small talk 의 서바이블 영어가 아니라 주어진 주제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기능을 하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학습자들이 개별 단어를 넘어, 한 두 문장의 small talk 수준을 뛰어넘어 정확성과 유창성을 겸비한 학습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결어 기능을 하는 전치사의 지도가 개별 단어 의미 중심이 아니라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함께 쓰이는 뭉칫말 형태로 확장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영문법 지도를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예비 연구 단계(preliminary research)로, 명시적인 어휘적 연어지도가 연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문법적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 GC)인 전치사+명사, 명사+전치사 연어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 효율적인 문법적 연어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적 연어지도가 연어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어휘적 연어능력과 전치사 연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연어 교수 학습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 전치사 연구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전치사이고 실제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가장 틀리는 부분도 전치사이다. 다시 말해, 영어에서 내용이 뚜렷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은 그 뜻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그 뜻이 분명하지가 않은 전치사를 바로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이기동, 2001). Cambridge(2005) 사전에는 전치사 of 의 뜻이 크게 19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 분류는 다시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 전치사에 주어지는 의미는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의성과 의미 구조가 복잡한 영어 전치사를 외국어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란 매우 어렵다(Swan, 1997). 더욱이, 설문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휘학습을 하면서 품사 인식을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보통이하 52.5%). 이는 학습자들이 영어 어휘를 단지 형태와 의미만을 단순 암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학습한 어휘를 결합하여 뭉칫말화(chunking)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에 단순한 의미 이해 중심의 학습으로 인하여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산출 기술(productive skills) 활용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원자적인 개별 단어 중심의 학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휘 간 결합을 통한 뭉칫말 학습에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지 못하다. Nation(2002)은 한 단어의 학습 부담(learning burden of a word)으로 의미(meaning), 형태(form),

그리고 사용(use)를 들면서, 사용상에는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s), 연어, 사용상 제약들(constraints on use)을 지적하고, 특히 단어 사용에서는 연어 결합어(collocation collocates)를 학습시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치사와 관련하여 어휘를 품사별로 대별하면,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된 요소로 역할을 하는 내용어(content words)와 부수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어(function words)로 나누어진다. 기능어에 속하는 영어 전치사는 상당부분 한국어의 후치사(postposition)인 조사 기능을 하는 관계로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의 학습자가 더욱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어의 후치사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전치사도 그 사용 빈도수는 매우 높다. 이는 영어 어휘 코퍼스를 통해 살펴보면 상위 50 고빈도 단어 중에 8 개의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다: to(no. 3), of(no. 5), in(no. 9), on(no. 15), for(no. 16), with(no. 21), at(no. 27), from(no. 50)는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O'Keeffe, McCarthy, & Carter, 2007, p. 34).

이와 같이 전치사는 영어 사용에 있어 빈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우고 쓰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품사 중 하나다. 그 동안 많은 전치사 연구는 개별 단어의 기본 의미 활용이나 의미확장(오윤자, 2004; 정희자, 2007), 동사+전치사의 구동사(윤주희, 2007; 이방주, 2005; 현완송, 2009)등이 있다. 한편, 김윤정(2005), 박민희(2007), 송인동(2000)은 전치사를 연어적 접근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제 좀 더 전치사의 종류 및 그 활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영어에 100 여 개의 수가 있는 전치사는 표 1 과 같이 어 구성(word-formation)을 토대로 크게 단순 전치사(simple prepositions), 복합전치사(mixed/compound prepositions), 합성전치사(complex prepositions), 그리고 분사전치사 (participle prepositions)가 있다. 이와 같은 전치사를 전치사+명사 연어적 접근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전치사의 형태별 종류

전치사의 형태별 종류	예
1. 단순전치사	On, in, from, to, for, of, by, at, up, down
2. 복합전치사	Into, upon, throughout, without, onto, along
3. 합성전치사	Along with, by means of, in addition to, out of
4. 분사전치사	Including, pending, considering, concerning

첫째, 단순 전치사는 on, in, to 처럼 독립성이 약하나 해석상 의존성이 강하다. 즉, 해석상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뒤에 다른 단어가 와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on (sale)'에서 괄호 안에 있는 말을 해석하지 못하면 전치사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둘째, into(in+to), throughout(through+out), without(with+out)처럼 그 철자를 분리하면 다른 두 개의 전치사가 된다. 이와

같은 전치사도 독립성이 약해서 뒤에 오는 단어와 합쳐져야 자연스럽게 활용이 된다(예, without any hesitation), 셋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어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그 냥 분리되어 각각 쓰인다. 이와 같은 전치사 중에는 전치사 연어 형태로 명사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말하기나 쓰기를 할 때 유용하다(예, at the beginning of the class). 마지막으로, 원래 동사에 –ing 를 붙여서 분사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어휘 파생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전치사로 의미를 다 나타내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동사를 변형하여 전치사로 사용하는 유형이다(예, considering her age). 각 전치사 종류별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전치사+명사 연어적 접근 방식으로 전치사를 뭉칫말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 동안 전치사를 개별 단어 의미만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생성력(productivity)을 높여 노력과 비용 효율성이 훨씬 클 것이다.

2. 연어 사용 능력과 그 필요성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어는 어휘적 특성과 어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언어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다(김낙복, 2005). 그 뿐만 아니라 언어 지식은 연어적 지식(collocational knowledge)이라고 강조하면서 연어 능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Hill, 2000; Lewis, 1997; McCarthy, 1990). 특히, McCarthy(1990)는 언어에는 강한 연어의 쌍(collocational pairs)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단어간의 결합인 연어를 혼인 계약서(marriage contract)에 비유하면서 어휘 궁합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Lewis(1997)는 연어를 크게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어 연구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상호 결합하는 어휘적 연어에 관한 것이었다(Kim; 2003, 2004; 김낙복, 2005; 김성식, 2004; 김성아, 박혜연, 2007; 김윤정, 2005; 이윤경, 2009). 이와 같은 어휘적 연어는 영어문장의 주요소를 구성한다. 반면에,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지배어(dominant word)가 전치사나 문법 구조(부정사나 절)와 결합하여 구성되는 문법적 연어는 단어, 구, 문장(절) 등 영어 숙달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김낙복(2005)은 어휘적 연어를 협의의 연어(narrow collocation)로, 문법적 연어를 광의의 연어(wide collocation)로 정의하였다.“협의의 연어는 주로 기저어(base)인 특정 단어가 결합어(collocator)인 특정한 다른 단어와의 반복적인 배열관계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lexemes)간의 배타적(exclusive) 혹은 제한적(limited) 공기 관계에 있는 어휘 짝(lexical pairs)이며, 광의의 연어는 어휘적 관계는 물론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한 단어나 어휘 항목이 동일한 문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특정한 다른 단어나 어휘 항목과의 배타적 혹은 제한적 공기관계에 있는 어휘 짝이나 구조 짝이다”(p. 145).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어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영어 어휘력 향상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입증한 다양한 실험 연구가 있어왔다(Kim, 2003; 김낙복, 2007; 김윤정, 2005; 이윤경, 2009; 이정원, 김낙복, 2005; 현태덕, 2007).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연어유형 중에서 명사+명사, 동사+명사, 형용사+명사, 형용사+부사, 동사+부사 등 주로 어휘적 연어에 관한 연구였다. 이와 같이 의미의 뭉칫말을 하나의 덩어리로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연어 능력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학습자의 유창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Hill, 2000; Lewis, 1997), 영어 단어의 다의성(polysemy)의 혼동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으며(김낙복, 2005), 연어 지식이 영어 숙달도 및 영작문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김윤정, 2005). 더욱이 모래알과 같은 개별 단어 중심의 단순 암기 학습보다 연어와 같이 두 단어 이상의 결합어인 뭉칫말 학습은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 즉, 단어간 서로 연계성을 통한 연상학습과 통·결합학습으로 단어간 전후 관계와 연계성 강화로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고 기억하고 저장한 상태로 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Hill(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어를 알고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강세와 억양 구사에도 도움을 주어 원어민다운(nativelike) 뭉칫말 단위의 억양 패턴을 하나의 단위로 익히고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단어 중심으로 학습하고 발화할 때에 낱개의 단어를 조합하는 경우보다 자연스러운 억양패턴과 강세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치사+명사, 명사+전치사 연어는 Benson, Benson, & Ilson(1997)에 따르면 문법적 연어에 해당한다. 즉, 문법적 연어는 emphasis on, rely on, famous for, by accident, under discussion 에서처럼 명사, 동사, 형용사 등과 전치사의 결합 형태이다. Benson 외(1997)는 연어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내용어와 기타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가 결합과 연결기능에 있어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자도 명사+전치사, 전치사+명사 연어 유형을 문법적 연어 방식에 의해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전치사의 형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전치사가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과 함께 뭉칫말로 기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Celce-Murcia 와 Larsen-Freeman(1999)도 전치사의 형태적인 면을 언급하면서 전치사와 공기하는 동사, 형용사, 명사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하기를 권했다. 이는 일찍이 Ooi 와 Lee(1996)가 동사는 명사와, 형용사는 명사와,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와, 동사는 전치사와 함께 결합하여 제시하고 가르침으로써 목표 언어 사용의 유용성을 설파한 점과 맥을 같이한다. 표 1 은 전치사를 포함한 연어 유형을 그 예와 제시한 것이다.

표 2

전치사의 연어 유형과 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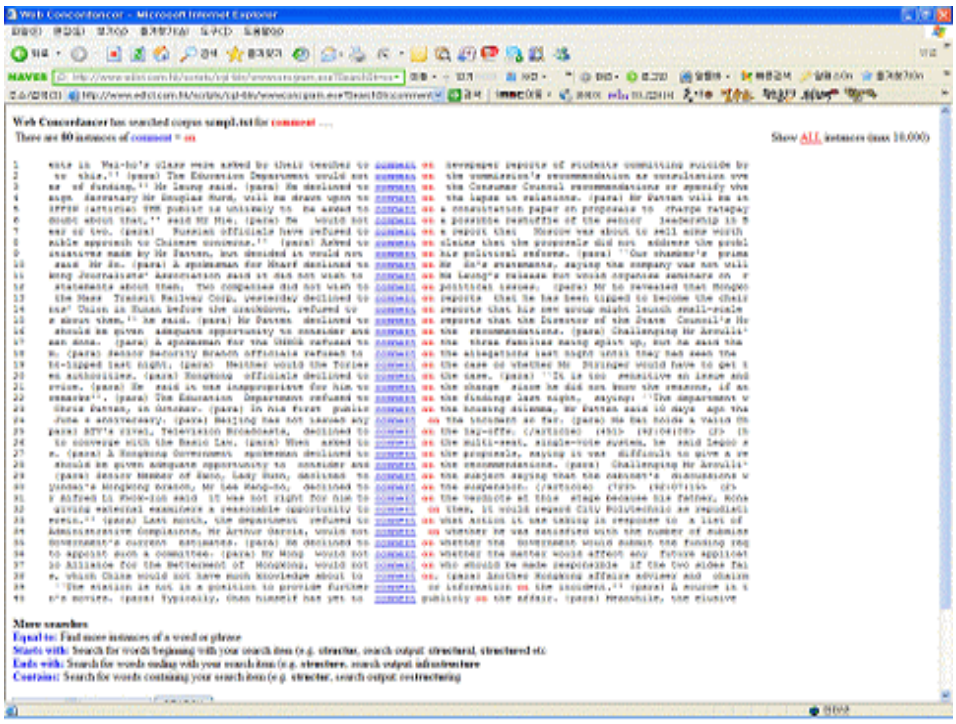
전치사를 포함한 연어 유형	예
1. 동사+전치사	Look into, complain about, arrive at
2. 동사+명사+전치사	Pay attention to, make use of
3. 전치사+명사+전치사	In celebration of, in cooperation with
4. 전치사+명사	On display, under construction, in pain
5. 명사+전치사	Comment on(about), trip to, problem with,
6. 형용사+전치사	(be) afraid of, interested in, famous for

유형 1 동사+전치사는 일반적으로 구동사(phrasal verb)라 한다. 이 유형에는 look into 와 같이 동사에 전치사가 결합한 경우도 있지만, put up with 와 같이 부사와 전치사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 영어의 자동사가 전치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 2 동사+ 명사+전치사는 동사구(verb phrase)를 구성한다. 유형 3 전치사+명사 +전치사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전치사가 명사의 전후에서 위치하면서 연결하여 준다. 유형 6 은 형용사+전치사로 학생들이 대부분 숙어식으로 암기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 4 전치사+명사와, 유형 5 명사+전치사는 명사 전후에서 전치사가 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의미와 형태를 연결해준다. 많은 학생들은 어휘를 개별 어휘에 집중하고 반복 암기 방식으로 공부하여 왔다(1 차 설문 결과 55%).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전치사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시간, 장소, 위치, 방향 등 개별 전치사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쳤다. 그 결과 문장 속에서 다른 명사와 함께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림 1 은 동사나 명사로 쓰이는 comment 가 전치사 on 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는 코퍼스를 보여주고 있다. 원어민들은 이와 같이 단어간 결합인 뭉칫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에게는 처음부터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함께 결합하여 학습하지 않으면 발화하거나 쓰는 경우 어려움을 겪기 쉽다. 두 단어 이상이 함께 공기하여 사용되는 뭉칫말 중심의 어휘적 접근 방식은 Lewis(1997)가 말한 바와 같이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사고의 전환과 언어 습득 본질에 충실하여 외국어를 학습하자는 강조점을 시사해준다.

그림 1

동사나 명사로 쓰이는 comment 가 전치사 on 과 결합하는 예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기간

연구 대상은 현재 N 대학교 1 학년생 40 명이며, 여학생 20 명, 남학생 20 명이다.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3 학년까지 매 학기 어휘력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 학기에 본시험(통과 점수는 75 점 이상)과 재시험(본 시험에서 탈락자 응시)으로 2 회 응시 기회를 가진다. 학기초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어휘전략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였고 학기 말에 2 차 설문을 하였다. 문법적 연어인 100 문항의 전치사 연어 문제는 어휘 뭉칫말의 유형과 원리에 관한 수업(어휘적 연어 수업)을 2 회 받고 1 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6 차 수업을 받은 후 2 차 시험을 보았다. 연구 기간은 2010 년 3 월 중순부터 5 월 말까지 약 2 개월 간이다. 이 기간 동안 피험자들은 6 회에 걸쳐 어휘 뭉칫말(lexical chunks)에 관한 공개 수업을 받았으며 수업 전 후 2 회에 걸쳐 어휘력 시험(연어 인식도 시험)을 보았다.

2. 연구 내용 및 절차

한국어에 부재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주로 명사의 앞 뒤에 위치하여 주로 연결어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2 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연어 유형 중 유형 1 인 동사+전치사, 유형 3 인 전치사+명사+전치사, 유형 6 인 형용사+전치사는 한국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주로 숙어식으로 암기하는 것들로 어느 정도 익숙한 유형들이다. 반면에, 유형 4 전치사+명사는 일부분은 숙어식으로 암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형 5 인 명사+전치사는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 생소할 수가 있는 전치사 연어이다. 여기에서는 개별 단어 암기에 익숙한 한국학생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전치사+명사, 명사+전치사 유형만을 연구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절차는 먼저, 학생들의 기본 어휘전략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두 번째의 연구도구인 어휘 뭉칫말, 즉 어휘적 연어에 관한 공개 수업을 여섯 번 받았으며 수업 전, 후 두 번에 걸쳐 테스트를 받았다. 또한, 학과 규정에 따라 어휘력 검사를 위해 학생들은 두 번에 걸쳐 평가를 받았으며 1 차 시험은 두 번의 공개 수업 후에 실시되었고 2 차 시험은 8 주째에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75 점 이상이 되어야 통과점수로 하였으며 1 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도 2 차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1 차/2 차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치사 연어 시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한편, 100 문항으로 구성된 명사+전치사(50 문항), 전치사+명사(50 문항)의 문법적 연어인 전치사 연어에 있어서는, 어휘 뭉칫말(어휘적 연어) 지도를 하면서 결합의 원리와 유형을 통해 하나의 단어가 필요에 의해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 어휘 궁합의 원리를 지도하였으며, 명사 자체나 문법적 연어에 대한 명시적인 별도 지도는 하지 않고 문항마다 명사에는 진한 볼드체로 표시하여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주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을 보면서 명사의 의미를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즉, 명사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명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여 문항분석을 통해 차후 지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어휘 전략을 알아보고자 학습초기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Kim N-B(2008)이 제작한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10 문항으로 학생들의 어휘 학습 전략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도구인 어휘력 평가지(어휘적 연어 인식도 평가)는 어휘 뭉칫말 5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제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Part 1 은 15 문항으로 주어진 영어 뭉칫말을 우리말로 쓰도록 되어 있으며(예, horror movie → 공포영화), Part 2 도 15 문항으로 한국어의 뭉칫말을 영어로 쓰도록 되어 있으며(예, 개학식 → opening ceremony), Part 3 은 10 문항으로 TOEIC 시험의 Part 5 와 같은 형태로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도록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Part 4 는 10 문항으로 빈칸의 한국어의 뭉칫말에 해당하는 영어를 고르거나 쓰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어휘력 고사는 학생들의 어휘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개별 단어 학습 중심에서 의미 단위의 뭉칫말 학습을 촉진하고자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 도구는 문법적 연어인 전치사 연어 문제로 Part 1 전치사+명사 50 문항, Part 2 명사+전치사 50 문항으로 총 100 문항이다. 이 연어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2002), *English collocations in use*(2005),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1997)을 참고하였으며 코퍼스 어휘수가 총 550 단어 내외로 비슷하도록 제작하였다. 먼저 각 유형별 60 개의 문항을 제작한 후, 한국 대학에서 2 년 이상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원어민 5 명에게 정답을 요청했다. 명사+전치사 유형에서 5-8 개의 문항에서 서로 다른 전치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선 중의성으로 학생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문제를 제외하고 최종 50 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물론, 한 개 이상의 전치사가 가능한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문항에 포함시켰다(예, over/on/during the weekend).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2 차 설문에 대한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고, 어휘력 평가와 전치사 연어 평가 점수의 유의성을 알아보고,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평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코딩 처리한 후 SPSS 12.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 도는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어휘력 1 차 고사와 2 차 고사간 비교를 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와 t 검정을 하였고, 전치사 연어 평가의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어휘력 고사 성적과 전치사 연어 평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설문지 응답 결과 분석

학습자의 요구 분석 및 기본 어휘사용전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0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전, 사후 두 차례 실시하였다. 두 문항(9-10 문항)을 제외하고 1 번 '전혀/거의 그렇지 않다(전혀/거의)', 2 번 '별로 그렇지 않다(별로)', 3 번'보통이다(보통)', 4 번 '대체로 그렇다(대체로)', '매우 그렇다(매우)'의 5 점 척도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물론, 1 차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용어나 내용의 이해를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금까지 어휘학습을 하면서 사용한 전략과 방법들을 정확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표 3
어휘 학습 전략 설문지 분석 결과(응답자 수/%)

문항	전혀/거의		별로		보통이다		대체로		매우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2 차	1 차	2 차
어휘력 중요성 인식도(1)					5 (12.5)	4 (10)	17 (42.5)	12 (30)	18 (45)	24 (60)
연어개념 인식도(2)	12 (30)	5 (12.5)	17 (42,5)	8 (20)	7 (17.5)	10 (25)	4 (10)	12 (30)		5 (12.5)
연어를 활용한 학습 정도(3)	16 (40)	2 (5)	17 (42.5)	7 (17.5)	5 (12.5)	11 (27.5)	2 (5)	16 (40)		4 (10)
어휘학습시 품사확인유무(4)	1 (2.5)	1 (2.5)	9 (22.5)	6 (15)	11 (27.5)	7 (17.5)	12 (30)	17 (42.5)	7 (17.5)	9 ((22.5)
어휘적 뭉칫말 용어 인식도(5)	14 (35)	4 (10)	10 (25)	3 (7.5)	13 (32.5)	11 (27.5)	3 (7.5)	14 (35)		8 (20)
어휘적 뭉칫말 실천 정도(6)	13 (32.5)	2 (5)	14 (35)	9 (22.5)	11 (27.5)	10 (25)	2 (5)	14 (35)		5 (12.5)
사전구성요소 및 활용방법인식도(7)	1 (2.5)	1 (2.5)	5 (12.5)	5 (12.5)	25 (62.5)	7 (17.5)	9 (22.5)	14 (35)		13 (32.5)
영어공부시 사전 활용유무(8)		1 (2.5)	3 (7.5)	3 (7.5)	18 (45)	11 (27.5)	12 (30)	17 (42,5)	7 ((17.5)	8 ((20)
주로 사용하는 사전 종류(9)	영한사전: 1 차 31(77.5)/ 2 차 20:50), 영영한: 1 차 4(10)/ 2 차 8(20), 한영: 1 차 5(12.5)/ 2 차 8(20)), 연어사전: 1 차 0(0)/2 차 4(10))									
어휘력 향상을 위한 주된 어휘학습방법(10)	단어 목록으로 영어에 한국어 대응 의미 익힘: 1 차 22(55)/2 차 21(52.5) 영어 단어의 파생어를 함께 공부함: 1 차 3(7.5)/2 차 5(12.5) 의미망을 활용하여 학습함: 1 차 4(10)/2 차 2(5) 문맥을 통한 의미 추측: 1 차 7(17.5)/ 2 차 10(25) 주제별로 연관되는 어휘를 익힘: 1 차 4(10)/ 2 차 2(5)									

( )은 백분율임

표 3 은 학생들의 기본 어휘 학습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이 영어 학습에서 어휘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1 차 87.5%) 절반 이상이 주된

어휘력 향상 방법은 단어 목록(wordlist)에 의존하여 개별 단어 중심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차: 55%, 2 차: 52.5%). 또한, 학습자들은 어휘 궁합의 기본 원리인 연어나 어휘적 뭉칫말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으며, 이에 따라 어휘의 결합 원리를 통한 의미 단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몇 차례의 학습 후 2 차 설문 조사에서는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개념인식을 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점이라 생각한다. 한편, 어휘학습에서 모르는 단어를 마주하였을 경우 사전을 찾게 되는데 주로 영한 사전을 사용하고 있으며(1 차 77.5%, 2 차 50%), 1 차에서는 사전의 구성요소 및 활용 방법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 후 2 차 조사에서는 67.5%가 사전의 구성요소 및 활용방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단순한 의미만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품사 인식도 검사에서의 응답을 통해 유추할 수가 있는데, 1 차에서는 47.5%정도의 학생들만이 품사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간 결합인 어휘 궁합은 기본적으로 품사간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학생들이 품사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은 어느 특정한 어휘의 의미(meaning)뿐만 아니라 철자(written form), 발음(spoken form), 문법규칙(grammatical behavior), 연어(collocation), 관련성 (association), 사용 빈도(frequency)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McCarthy, 1990)을 인식하고, 사전 사용시 이러한 점들을 적용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4 는 어휘력 평가로서 연어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1 차 평가보다 2 차 평가에서 평균 30 점 이상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처음 1 차에서 개별 어휘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은 연어 인식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75 점 통과점수 이상을 맞은 학생이 3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단어가 서로 결합하여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는 어휘 궁합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2 차 평가에서는 피험자 40 명 중 27 명이 75 점 이상을 받았다. 이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보다 어휘 지식이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어적 어휘 지도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 .000)

표 4

연어 인식도 1차, 2차 평가의 t-검정 결과 (N=40)

차시	M	SD	t	p
1 차평가	44.03	19.17	-9.726	.000
2 차평가	75.90	14.29		

표 5는 본 연구의 핵심인 전치사 연어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평가에서 전치사+명사가 명사+전치사보다 3점 가까이 높았다. 이는 전치사+명사인 경우 일부분은 숙어식으로 이미 익숙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치사+명사 연어 유형의 명사의 인식도(1차 85.3%)가 명사+전치사 연어 유형에서의 명사 인식도(1차 78.15%) 보다 높았음에서 유추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명사의 의미는 많은 문항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명사와 결합하는 전치사의 선택에 있어서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1차 평균 14) 것으로 보아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차 평가보다 2차 평가에서 두 유형의 연어성적이 현저히 좋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통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연어 인식도를 유지하고 더 발달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뭉칫말 원리를 지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표 5

전치사 연어 평가의 t-검정 결과 (N=40)

유형	차시	M	SD	t	p
전치사 + 명사	사전평가	15.50	5.60	-8.691	.000
	사후평가	24.65	7.94		
명사 + 전치사	사전평가	12.63	5.76	-8.902	.000
	사후평가	24.23	7.98		

다음은 전치사+명사와 명사+전치사 연어 문제에서 학생들의 명사 인식률을 살펴보면 문항에 따라 1 차보다 2 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고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즉,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50 문항 중에서 16 문항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7 문항은 1 차에서 보다 2 차에서 다소 줄어든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모르는 단어의 경우 소위 wild guessing 하여 무작위로 찍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2 차에서 점수가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 또한, 전치사+명사 연어인 경우에는 명사+전치사 연어보다 명사 인식률이 높았다(전치사+명사, 1 차: 85.3%; 명사+전치사, 1 차: 78.15%). 이와 같은 경우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차후 명사의 인식도를 조사할 때 각 문항의 명사를 ‘완전하게 알고 있다(fully-known)’, ‘대충 알고 있다(half-known)’, ‘전혀 모른다’(totally-unknown)’와 같은 세부항목을 개발하여 인식도를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적 연어 원리와 유형 및 사용을 예를 통해 설명하고 실제 응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여 더 큰 어휘적 단위를 형성하여 의미 단위를 보여줌을 학습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문법적 연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언어 의미의 창출을 위해

언어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의식을 고양시켜주었다. 한편, 명사+전치사 연어에서 명사 인식도는 전치사+명사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명사 인식도에 의한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 난이도의 영향일 수도 있다. 표 5 에서 보듯이 사후평가에서는 거의 비슷한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전치사+명사 24.65, 명사+전치사 24.23), 이는 명사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고 그 명사와 함께 결합하여 쓰이는 전치사의 선택에 있어 명사의 의미와 형태뿐 아니라 어휘적 특성을 살펴서 선택하였으리라 생각한다.

표 6
어휘적 연어평가와 문법적 연어 평가와의 상관 관계

	Pre-test (GC:P+N)	Posttest (GC:P+N)	Pretest (GC:N+P)	Posttest (GC:N+P)	Pretest (LC)	Posttest (LC)
Pre-test (GC:P+N)	1					
Posttest (GC:P+N)	.563(**)					
Pretest (GC:N+P)	.570(**)	.312(*)				
Posttest (GC:N+P)	.359(*)	.688(**)	.279			
Pretest (LC)	.207	-.002	.179	-.102		
Posttest (LC)	.221	.262	.029	.038	.260	1

*p< 0.05, **p< 0.001

표 6 은 어휘적 연어(LC) 지도를 통한 어휘력 향상은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휘적 연어가 전치사+명사(P+N)나 명사+전치사(N+P)와 같은 문법적 연어와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휘적 연어인 경우 공개 수업으로 명시적으로 개별 단어의 결합 관계와 유형을 학습하고 테스트한 반면, 문법적 연어인 경우 특별히 구체적인 학습지도 없이 단순히‘명사와 결합하여 함께 어휘 궁합을 이루어 쓰일 수 있는 전치사를 골라서 써 넣으시오’라고 문장 속에서 명사에 볼드체로 진하게 하고 전후에 알맞은 전치사를 주어진 전치사 중에서 골라 쓰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휘적 연어 지식이 문법적 지식으로 전이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합의 기본 원리뿐만 아니라 명사의 특성 및 전치사의 특성을 함께 명시적으로 지도하면서 문법적 연어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뭉칫말로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언어 기술에 적용하여 익숙하게 하도록 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또한, 문법적 연어인 경우 부정사나 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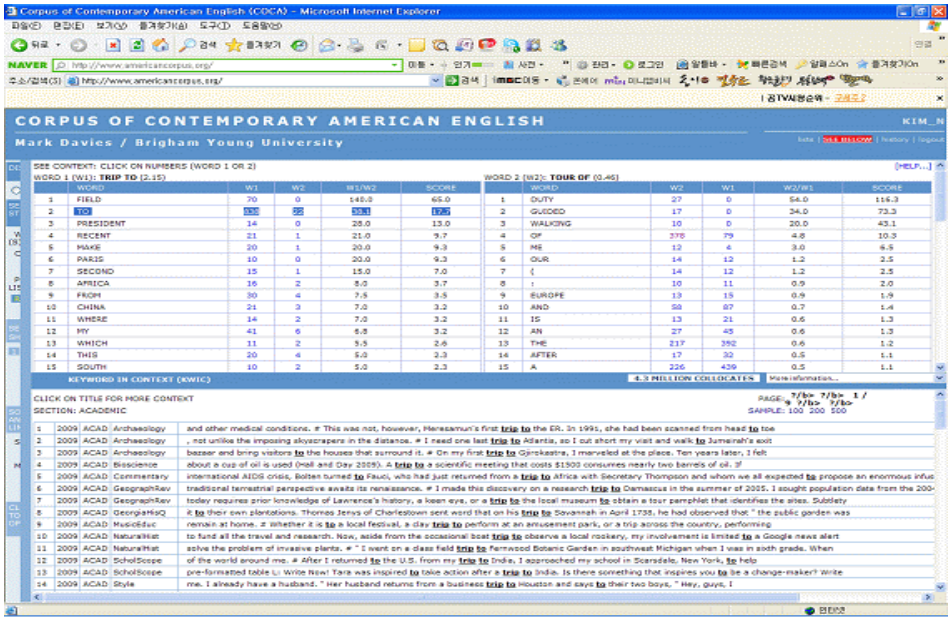
같은 광의의 연어 관계가 결합의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장 단위이상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논의

기초설문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어휘학습을 개별단어 중심으로 실천해오고 있었으며(1 차: 55%, 2 차: 52.5%), 연어나 어휘적 뭉칫말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다. 여러 차례 연어와 어휘적 뭉칫말로 대표되는 어휘적 접근 방식으로 학습활동 후 연어 능력은 어휘력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주었다(김낙복, 2007; 이정원, 김낙복, 2005; 현태덕, 2007). 본 연구에서도 어휘적 연어 성적이 학습활동을 한 후 유의미한 성적향상을 가져왔으며, 전치사 연어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별 단어에 익숙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단어에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 원리를 학습하고 그 원리에 따라 어휘학습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

명사 trip 이 전치사 to 와 결합한 코퍼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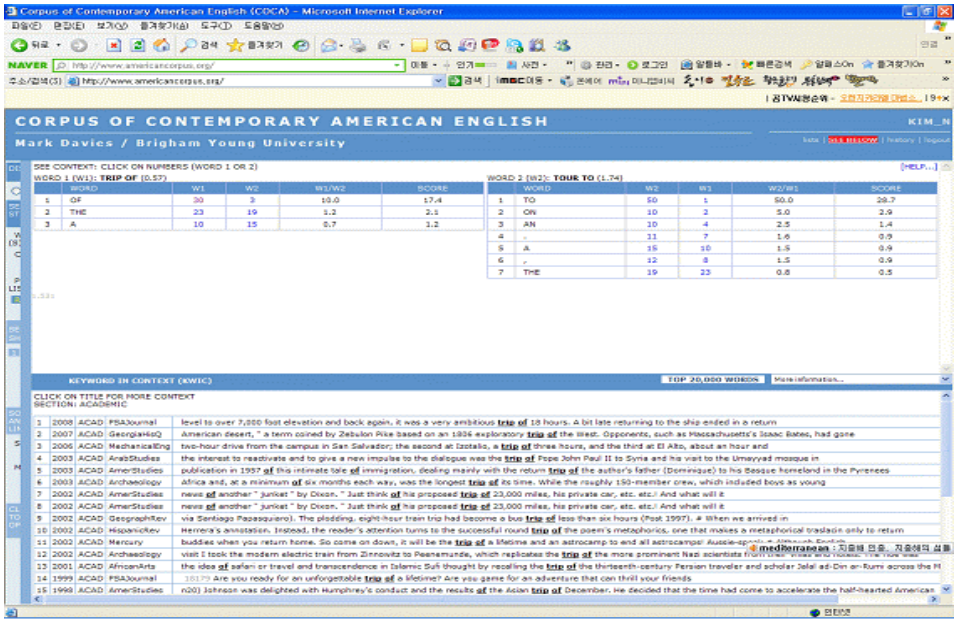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에서 흥미를 가지고 살펴본 것은 하나의 단어는 다른 단어를 결합어로 제의하는데 항상 동등하지는 않다(Lewis, 1997)는 점이다. 그림 2 와 3 에서 보듯이, 한국어로 '여행'이라는 유사어로 쓰이는 tour 와 trip 의 코퍼스

비교를 통해 전치사의 사용 예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어휘의 다양한 유형과 활용, 즉, 영어와 우리말의 대응관계, 어 형성의 원리, 외연적·내포적 의미, 단어 문법상 특성(word grammar), 단어간의 결합인 어휘적 뭉칫말, 의미상 다의성 등 코퍼스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CAE)를 통해 살펴본 결과 trip 은 명사 field 와 가장 많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to 와 결합하고 있음을 그림 2 는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명사 tour 가 전치사 of 와 결합한 코퍼스 예



반면에 tour 은 tour of duty, guided tour, walking tour 와 같이 duty, guided, walking 다음 네 번째로 전치사 of 와 결합하고 있음을 그림 3 은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사+전치사 연어 형태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았는데, 19 번인 경우 1 차에 22 명이, 2 차에 31 명이 'to'를 선택한 반면, 33 번은 1 차에 15 명 2 차에 22 명이 'of'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유사어는 코퍼스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비교 분석하여 학습하면 어휘 짝을 찾아 학습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다.

19 번, Chris decided to take a trip **__to__** London and stay overnight.
33 번, She's in the midst of a three-week tour **__of__** the US.

언어 학습의 주된 과정은 목표언어의 화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쓰는지 주목하는 관찰단계(**O**bservation)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개별적인 가설단계(**H**ypothesis)를 거쳐 실제 그와 유사한 상황과 마주하여 반복하여 흉내내고 결국에는 원어민처럼 의사소통을 실험하는 단계(**E**xperiment)로 OHE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일까하는 것이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학습자의 측면에서 보면, 영어 공부에서 난관으로 마주치는 것이 먼저 어휘와 문법일 것이다. 어휘는 모든 언어 학습의 기본이며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암기하는 것은 독해나 듣기에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어휘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어와 같은 어휘적 뭉칫말은 문법적 구조와 결합하여 문장 속에서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적 연어 학습을 통해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다른 여러 연구자들이 입증하고 있다는(권양희, 2005; 김낙복, 2005; 김성식, 2004) 점에서 앞으로의 어휘지도 방향이 단어 목록 중심의 개별 단어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둘째, 명시적인 어휘적 연어 학습 지도가 문법적 연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는 결합의 기본 원리에 있어 접근방식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합성과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경우보다는 명시적으로 직접 지도하여야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전치사와 같은 연결 기능을 가진 품사의 어휘적 특성 및 연어 제약(collocational restrictions)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본격적인 문법적 연어관련 연구에서는 어휘적 연어 학습 지도는 물론 문법적 연어 학습 지도가 병행함으로써 통합적인 연어 능력이 향상되는지 그 상관관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학에서의 어휘 문법 학습 지도를 하는 경우, 개별 단어 중심 학습 활동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연어 지식 능력을 키워주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그러나 기본 원리, 즉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어휘 뭉칫말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실증적인 내용(연어 짝, 어휘 뭉칫말 등의 코퍼스 분석 자료)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로 연어적 접근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단어 이상의 결합어인 연어는 전통적인 상향식 처리 과정(bottom-up processing)과 하향식 처리 과정(top-down processing)을 적절히 절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이 방식은 학습자가 특정

어휘와 결합하는 패턴까지 알 수 있어 언어 수행의 예측성(predictability), 반복가능성(replicability),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상승시켜 언어의 이해 가능한 출력(comprehensible output)을 배가시킬 수 있다. 즉,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어휘 학습과정에서 연어 접근 방식은 원자적인 개별 단어 중심 학습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소위 하나의 통문장 학습은 학습자의 학습부담이 너무 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함께 어울려 어휘 궁합을 이루는 뭉칫말, 즉 연어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의 통합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최근에 논의가 활발한 어휘-문법 연속체(lexico-grammatical continuum) 상에서 어휘-문법 통합적 접근방식을 보다 더 연구하여 실용화하여야 할 과제를 던져준다.

참 고 문 헌

권양희. (2005). *연어를 통한 어휘학습이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어휘능력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김낙복. (2005). 영어 연어의 고찰과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 12*(2), 141-165.

김낙복. (2007).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13*(3), 157-176.

김보영. (2008).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분석: 고빈도 동사+ 명사구 연어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김성식. (2004).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위한 어휘 중심 교수법 수업 모형 어휘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김성아, 박혜연. (2007). 한국 EFL 학습자의 연어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학습자를 중심으로. *영어학, 7*(3), 325-344.

김윤정. (2005). 연어능력이 대학생들의 영어숙달도와 영작문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11*(4), 189-208.

박민희. (2007). *연어를 활용한 전치사 교수법에 대한 연구: 문법적 연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송인동. (2000). 영어전치사 어휘교수요목의 설계와 인터넷 원격교육에의 적용. *대한언어학회, 8*(3), 317-339.

오윤자. (2004). 영어 전치사의 확장. *언어과학연구, 11*(2), 197-217.

윤주희. (2007). *Phrasal verb 를 통한 collocations 활용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이기동. (2001). *영어전치사 연구: 의미와 용법*. 서울: 교문사.

이방주. (2005). *코퍼스 기반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난 구동사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이윤경. (2009). 코퍼스 기반 한국 대학생의 어휘적 연어 능력 연구. *현대문법연구, 57*, 245-266.

이정원, 김낙복. (2005).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영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60*(2), 111-135.

이현정. (2009). *구동사 연구 및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정희자. (2007). 전치사 의미 확장. *새한영어영문학, 49*(1), 239-261.

현완송. (2009). 다어동사에 대한 고찰: 구동사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5*(1), 391-408.

현태덕. (2007). 연어 학습이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8*(1), 191-209.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97).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Philadelphia, MA: John Benjamins.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EL teacher's course* (2nd ed.). Boston, MA: Heinle & Heinle.

Conzett, J. (2000). Integrating collocation into a reading & writing course. In M. Lewis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pp. 47-69).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Crowther, J., Dignen, S., & Lea, D. (Eds.). (2002).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vies, M. (2010).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Retrieved June 19,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 americancorpus.org.

Hill, J. (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M. Lewis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pp. 47-69).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Kim, D-B. (2008). Analysis of Korean university EFL learners' adjective+noun collocational competency. *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4*(4), 261-282.

Kim, N-B. (2003). An investigation into the collocational competence of Korean high school EFL learners. *English Teaching, 58*(4), 225-248.

Kim, N-B. (2004). A collocational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suggestions for collocation instruc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3), 41-66.

Kim, N-B. (2008). Teaching in chunks: Facilitating English proficiency. *Modern English Education, 9*(1), 30-51.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McCarthy, M. (1990). *Vocabul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ion, I. S. P. (2002). Best practice in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In J. C. Richards & W. A.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pp. 267-2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tinger, J. R., & DeCarrico, J. S. (1992). *Lexical phrase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Keeffe, A., McCarthy, M., & Carter, R. (2007). *From corpus to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oi, D., & Lee, J. K.-S. (1996). Vocabulary teaching: Looking behind the word. *ELT Journal, 50*(1), 52-58.

Swan, M. (1997).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alter. E. (2005).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Secondary/Tertiary

김낙복
나사렛대학교 영어학과
330-7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 2 동 456 번지 오웬스국제관
Tel: 041-570-1514
Email: knb2030@kornu.ac.kr

Received in July 14, 2010
Reviewed in August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ember 15, 2010